

한국 표준시

한국 표준시(, KST, Korea Standard Time)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표준시로, 일본 표준시와 같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여 UTC보다 9시간 빠른 표준시(UTC+09:00)이다. 양국 모두 일광 절약 시간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.

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처음으로 표준시(UTC+08:30)가 정해졌고, 1908년 4월 1일부터 1911년 말까지 시행되었다. 1912년 1월 1일에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 기준인 일본 표준시(UTC+09:00)와 동일하게 표준시를 변경하였고,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는 UTC+09:00를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. 다만,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까지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2015년 8월 1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UTC+08:30을 표준시로 사용한 적이 있다.[2]